

김형익 목사의 율법과 복음

7강 죄, 그 가공할 능력 (롬 7:7~13)

1. '율법 덕분에!' : 율법이 왔을 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7~13).

문제는 율법이었구나!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기 쉽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한다(7절).

7~13절은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있는 죄라고 말한다.

A. '계명이 이르매'(when the commandment came, 9)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고, '계명이 이르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 '전에 율법 없이 살았을 때' :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어느 순간엔가 율법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때가 왔다. 그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B. 죄의 본질을 알았다(7).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치는 진정한 고통은 그가 그 죄를 모른다는 사실에 있다. 사람이 죄의 본질과 성격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알게 될 때,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구주를 찾게 된다.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으면 자아는 살아있게 되지만 죄가 죄로 드러나면 자아는 죽기 시작한다.

C. 죄와 탐심의 가공할 능력을 알았다(7~8).

죄가 계명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나의 양심과 도덕관념과 기준의 저항을 제거하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냈다.

죄는 소극적으로 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선한 율법도 이용하여 자기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냄으로써 목적을 성취할 만큼 강력한 존재다.

D.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의 기만성이다(11).

율법마저도 무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율법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죄가 문제다.

그래서 종교적 위선보다 무서운 게 없다(눅 18:9).

2. 율법 없는 복음, 곤고한 외침이 없이 주어지는 구원(롬 7:24)

율법이 하는 일은 죄로 심히 죄 되게 함으로써 죄인의 마음을 찢어놓고 죄인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자기가 누군지 모른 채 평생 죄에게 기만당하여 지옥문에 들어갈 때까지 거짓된 자기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7:24).”

이 절망적 탄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주 예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탄식이다.

로마서 7장이 가르치는 진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사라진 가르침이다. 율법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탄식을 생략해버렸다. 곤고한 외침이 없이 구원이 선포된다. “누구든지 영접 기도를

따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믿는다. 그것은 율법이 없는 복음이다. 우리는 결코 율법이 없이 복음에 이르지 못한다.

